

치 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올해를 회향하며 결집을 다지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2015 정기총회를 축하하며,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는 2016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의 힘찬 도약을 기원합니다.

대불련은 역사적으로 삼보를 호지하고 보살도의 삶을 걸어가면서 개인의 무궁한 발전은 물론이고, 불교발전에 큰 힘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대학생 불자들의 변화의 구심점이자 선구적 위치에서 진일보해 나가는데 대학생 불자 여러분, 그리고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2015년은 다사다난한 한국사회 속에서 긴 안목으로 한국불교의 백년지계를 세우고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성찰하는 한 해였습니다. 그 가운데 대불련이 큰 역할을 해주어 힘이 되었습니다. 53년차 활동을 원만 회향하는 이채은 회장의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명진, 김유진, 윤동연 중앙집행위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이끌어갈 54년차 회장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언제나 처럼 신입회장을 중심으로 대학생 불자들이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며 희망의 한 해를 힘차게 이끌어가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대불련 대학생 불자들의 건강한 자리매김이 한국불교가 나아가는데 든든한 기둥임을 잊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대학생 포교를 위해 노력하는 현장 일선의 대불련 지부장과 지회장을 비롯한 대학생 불자, 그리고 홍지연 지도위원장과 지도위원단 등 모든 실무자들에게도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